

청소년기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

— 인지적 몰락을 매개변인으로 —

김정원·오경자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는 사회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밝히고자 Weiner의 분류 유형 중 신경증적 비행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서울 시내 실업계 및 인문계 고등학교 1학년생 528명을 대상으로 숨은 비행척도, Beck의 우울증 척도, 자기 도파 척도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들 질문지와 함께 사회경제적 수준, 학교 성적 수준 등을 평가하였다. 우선적으로 비행척도의 타당화 연구가 선행되었으며, 우울과 비행간의 내적기제에 대한 가설검증이 실시되었다. 분석 결과, 고등학생 집단에서 우울은 비행과 관련이 있었으나 이는 인지적 몰락을 매개로 하는 관계임이 밝혀졌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Baumeister의 '인지적 몰락'에 대한 이론이 우울로 인해 발생하는 비행을 설명하는데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비행의 문제는 해가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면서 집단화 되고 그들의 문제행동이 시작되는 연령도 더욱 낮아지고 있다(전광문, 1991; 신동호, 1991). 이 때문에 청소년을 이해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비행청소년 집단은 상당히 이질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전의 여러 연구들에서 이 집단의 특성을 한가지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지적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의 청소년 비행을 이해하려는 노력들 중 많은 연구들이 청소년기의 내적 문제, 특히 우울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많이 언급해 왔다(Chiles, Miller & Cox, 1980; Puig-Antich, 1982; Achenbach & Edel-

brock, 1983).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에 의해 청소년기 비행과 우울은 상당히 관련있는 것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에서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였지만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에 대한 내적 기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청소년의 비행 중 우울과 관련된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요인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청소년기의 비행은 매우 다양하므로 비행을 전체적으로 보기 보다는 특성들에 따라 분리시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비행의 유형에 대한 여러 분류 중 Weiner(1982)는 우울과 같은 내적, 심리적 측면을 고려

한 분류체계를 제시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비행 청소년은 우선 사회화된 비행청소년과 내재된 심리적 문제로 인해 비행을 일으키는 청소년으로 구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내재된 심리문제로 인한 비행 중에는 성격적 유형, 신경증적 비행, 정신병 및 기질적 뇌손상으로 인한 비행으로 구분된다. 이들 중 신경증적 비행은 상당한 비율에 속하며 이들은 과거에는 비교적 모범적이며 행동이 잘 통제되었는데 상실, 좌절, 실망 등을 경험한 후 비행이 나타는 경우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보이는 비행을 행동적 측면에서만 취급한다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비행청소년을 임상적 측면에서 다루는데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집단이라고 지적되었다. 이와같은 이유로 내재된 심리적 문제를 기준으로 한 분류, 특히 신경증적 비행은 우울과의 관련성으로 보아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유형으로 생각되며 분리되어 다루어질 수 있겠다.

일반적 의미의 비행 뿐 아니라 임상장면에 있어서도 비행과 우울과의 관련성에 근거하여 우울과 행동상의 문제가 공존하는 경우가 있음을 입증하는 연구는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Puig-Antich(1982)의 연구에서는 우울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들 중 30%가 행동장애 집단이 함께 내려진 결과를 보였으며, 이외 연구들에서도 우울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 23~30%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Kovacs et al, 1988; Craighead et al, 1991). 또한 비행집단이나 행동장애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10~23%가 우울을 동반한다고 보고하였다(Chiles et al, 1980; Ingalls, 1978; Edelbrock & Achenbach, 1980). 이상의 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 우울과 비행과의 관련성은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Cytryn과 Mcknew(1972), Chiles 등(1991)은 반사회적 행동을 가장된 우울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몇몇 연구들에서는 우울과 비행과의 관

계에서 우울이 일차적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연구는 Puig-Antich(1982)에 의해 이루어진 치료연구이다. 우울한 청소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항우울제(antidepressant)의 효과를 입증하고자 실시된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우울집단 중 23%가 행동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혼합된 집단을 받은 집단은 우울의 발병시기가 문제행동의 시작시기 보다 빨랐고, 우울증상이 치료되면서 행동상의 문제가 제거되었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추적연구 중 재발비율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우울이 재발하지 않으면 행동장애는 재발되지 않았고, 행동장애가 재발된 경우는 우울의 재발이 선행되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의 선행 행동상의 문제를 이끄는 일차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외에도 우울을 동반한 비행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일종의 위장이고 그들의 보다 근본적 문제는 우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Chiles, Miller와 Cox(1980)의 연구결과를 보면, 비행 집단 중 23%가 우울을 동반한 것으로 분류되었다. 이들 부모와의 여러 변인에 걸친 상관분석 결과 우울을 동반한 비행청소년은 성인 남자와 함께 지내는 비율보다 성인 여자와 지내는 비율이 높았으며, 가족 중 특히 부모가 우울, Alcoholism을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두가지 가능성을 시사한다. 첫째는 우울의 높은 유전 가능성에 관한 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 유전에 의한 우울 발생의 선행을 시사한다. 둘째는 반드시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울한 가족성원으로 인한 정서적 갈등은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우울을 동반한 비행청소년들의 부모에게서 나타난 우울의 유병 비율은 이들 청소년이 보이는 문제가 우울한 정서적 문제에 기인한다는 가정을 설득력있게 지지해 주는 결과가 된다. 이와 더불어 Chiles 등의 연구(1980)에서는 문제행동과 우울의 발병시기를 비교한 결과 우울의 발병시기가 빠르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

결과도 부모에게서 나타나는 우울증의 유병 비율과 더불어 우울이 선행문제라는 가정을 지지해 준다. 이상의 결과들은 청소년이 보이는 비행 증상 당 수가 정서적 문제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그들이 보이는 비행에는 정서적 문제, 대표적으로 우울이 선행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앞의 연구결과들에 근거하여 신경증적 비행의 경우 우울이 선행하여 비행을 이끄는 것이라고 본다면 우울이 비행과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울과 비행의 연결 기제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 한 예로서 우울과 자아개념의 관련성에 근거하여 Kaplan에 의해 제시된 자기태도에 대한 이론을 들 수 있다. Kaplan(1982)에 의하면, 사람은 자아존중감 동기(self-esteem motive)를 갖는데, 자기비하의 경험들로 인해 규준적 행동양식이 더이상 수용될 수 있는 반응으로 동기화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아존중 동기를 효과적으로 강화시키는 대안적 반응으로 일탈적 행동양식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Kaplan의 가설을 검증하려고 시도된 연구들은 일관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Kaplan과 Robbins(1983), Kaplan, Johnson과 Bailey(1986), Leung와 Drasgow(1986), 그리고 Kaplan, Martin과 Johnson(1986)등의 연구는 자아존중감과 비행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얻지 못한 연구들이 있다. Bynner, O'Malley와 Bachman(1981), Stanger, Chassin과 Young(1983), Wells와 Rankin(1983), MaCarthy와 Hoge(1984)등의 연구에서는 비행 행위에 대한 개입이 이후의 자아존중감을 낮춘다는 인과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자아존중감이 비행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Kaplan의 이론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일관되지 않게 나타난 것은 자아개념만으로 비행을 설명하기에 부족하며 자아개념과 비행간에 보다 구체적인 세부적인 경로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논의를 고려할 때, 우울이나 자아개념은

비행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의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들을 보아 우울, 자아개념과 비행간의 관계는 위의 연구들이 제시한 것처럼 직접적 관계라기 보다는 그 기제에 다른 변인이 매개되는 간접적인 관계가 아닌가 의심되며, 직접적 기제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기는 발달적 특성상 자의식이 급증하는 시기이다. 청소년기 자의식의 증가는 모든 일에 대한 의미부여, 내적 귀인의 증가를 의미하는데, 동시에 자기도취적 욕구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갖게 된다. 이때 어떤 좌절이 발생하면 자의식이 높은 청소년은 여기에 대한 자신의 기대나 평가적 기준과 커다란 모순을 느끼게 되는데 더불어서 자기에 대한 생각이나 평가 등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것은 청소년을 더욱 고통스러운 상태로 이끈다. 때문에 청소년은 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갈구하게 되며, 자신을 바라보고 분석해야 하는 합리적 사고나 단계적 문제해결의 방법을 활용하기 보다는 보다 강력하고 빠른 수단으로 생각이나 의식의 수준을 낮추어 극단적이고 자기파괴적 행동을 함으로서 자신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비행은 고통스러운 자기지각으로부터의 도피수단의 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자기로부터의 도피에 대한 가정은 Baumeister가 자살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제시한 '인지적 몰락'에 대한 이론에서 설명되었는데, 인지적 몰락의 과정이 청소년기 비행을 설명하는데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Baumeister는 인지적 몰락이란 정신기능의 협소화(mental narrowing)라고 설명하면서, 인지적 몰락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으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시간적 조망의 축소(shrinking of time perspective)로 과거나 미래에 대해 혐오적이거나 불안하게 생각하므로 현재의 순간에만 비정서적(unemotional)으로 편협하게 관심을 갖는 특성이다. 둘째는 터널비전(tunnel vision)의 사고과정

으로 즉각적인 것에만 협소하고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는 구체성(concreteness)이다. 따라서 의미 있고 통합적인 사고를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세째는 장기적 목표의 결여(absence of distal goal)로 현재의 감각적인 경험과 단순하고 기계적인 일에만 주의집중 함으로써 미래의 목표와 자신의 행동결과에 대해 덜 생각하게 하는 특성이다. 그리고 넷째, 모든 것을 피상적이고 무가치적으로 생각하는 의미의 거부(rejecting of meaning), 다섯째, 행동에 대한 내재화된 억제력의 약화를 반영하여 충동성을 나타내는 탈 억제(disinhibition), 여섯째,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것과 자기에 대한 평가를 회피하는 수동성(passivity) 및 무책임성, 일곱번째, 자기와 관련된 부정적인 정서로부터 도피하게 되는 감정의 결여(lack of emotion) 등의 특성이 이해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을 의미있고 현실적인 방식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비합리적 사고(unreasonable thinking)를 특성으로 보인다.

Baumeister가 제시한 인지적 몰락에 대한 개념에 입각해서 결과에 이르는 인과과정(causal process)이라고 할 수 있는 정신적 도피(mental escape) 과정에 대한 가정을 비행에 적용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이 이루고자 하는 기대 수준은 높는데 비해 현실적인 상태는 그에 미치지 못할 때 기대와 현실간에 괴리가 생기게 되고, 기대와 현실간의 괴리가 생긴 이유를 자신의 탓으로 돌려서 자기 비난과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하게 된다. 주의의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돌려져서 고통스런 자기지각(self-awareness)이 더욱 첨예화되고 자신에 대해 더욱 비판적이 되며, 그 결과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 상태가 초래되어 우울하게 된다. 개인은 이러한 고통스런 생각과 감정을 없애 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갈구하게 되는데, '인지적 몰락(cognitive-deconstruction)'상태가 유발되어 모든 사상에 대해 의미부여하기를 거부하고 모든 것을 피상적, 무가치적으로 지각하고 해석하여 내적 억제기제가 제거되면서 행동실행에 있어

서 자살이나 비행과 같은 극단적이고 자기파괴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즉, 청소년기에 급증하는 자기지각과 자기도취적 욕구가 기대와 현실간의 괴리를 크게 지각하게 하여 그 결과 우울감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야기된 우울감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충동이 강해져서, 본드 흡입을 통해 일시적으로 자기 자신을 잊거나, 음란서적, 음란비디오와 같이 감각적이고 구체적인 것에 몰두하는 등 자신이 하는 행동의 결과를 깊게 내성하지 않고 여러가지 일탈적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적 도피과정은 우울로 인해 비행에 이르는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것으로 보이며, Kaplan이 제시한 자아개념과 비행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화시킨 것이라고 생각된다.

위와같은 이론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자의식이 증가하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비행의 증가는 우울과 관련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어나는 인지적 몰락상태가 비행을 일으키는 것인지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그런데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를 인지적 몰락요인이 매개함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 세 변인과 더불어 비행과 관련되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변인들의 효과를 통제하여 우울이나 인지적 몰락이 갖는 독립적 영향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의 비행을 이해하는데 우울과 인지적 몰락 요인 외에도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다른 요인들로는 여러가지를 지적할 수 있는데, 그 예로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연구들 중 많은 경우에 지적 능력과 사회경제적 수준의 영향을 언급하고 있으며, 그 연구결과들은 지적능력과 관련된 학교 성적과 사회경제적 수준이 비행과 관련이 높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그 양상이 변하여 이 두 변인이 다른 변인들이 철저히 통제된 경우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지 않는다는 보고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두 변인과 비행과의 관련성은 대체로 일관적으로 밝혀진 것 같아 보인다(Lewis,

199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으로 위축되고 우울한 청소년들이 나타내는 비행과 우울, 인지적 몰락간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검토해 보고자, 성적 수준이나 사회경제적 수준을 함께 고려하여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Baumeister의 이론이 우울한 청소년이 일으키는 비행을 설명하는데 적합하여 우울-인지적 몰락-비행의 연결기제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면 더불어서 청소년기의 비행을 좀더 구체적인 하위유형별로 이해하기 위하여 이론에서 제시한 우울, 인지적 몰락, 비행간의 관계가 비행의 특정 하위유형과 특별한 관계를 갖는 것인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상의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 일반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를 살펴 보는데 그 관계가 간접적인 것이며, 그들간의 관계를 인지적 몰락이 매개하는 것인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분석 결과 우울-인지적 몰락-비행간의 관계가 밝혀지면 응용의 측면에서 그 기제가 비행의 하위유형들을 이해하는데도 적용되어 우울과 인지적 몰락이 비행의 특정한 하위유형을 설명하는데 더 적절하게 적용되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및 절차

조사대상자

이전 연구들의 결과에서 우울의 표현형태나, 우울과 관련된 사고양식에서 성차가 뚜렷이 나타난다는 연구들이 많았다(Craighead W. E., 1991; Block et al, 1991). 그리고 비행의 비율에서 현재까지도 분명한 성차를 보이기 때문에(전문성, 1992) 본 연구에서는 비행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등학교 남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집단에 대한 조사는 1992년 10월 5일부터 10월 20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대상은 서울 시내 노원구, 송파구에 위치한 인문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 5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들의 평균적 가정환경을 살펴본 결과 사회경제적 수준은 중류에 속하였고, 부모의 직업은 거의 준 기술직이나, 생산직, 관리 사무직에 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부모의 생존 및 이혼 여부를 묻는 문항들을 살펴본 결과 대상자 중 83.4%는 친 부모가 생존한 경우였다.

평가 도구

1) Beck의 우울증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 BDI)

BDI는 우울증의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그리고 행동적 증상들을 포함하는 21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형 척도이다. 각 문항은 증상의 심한 정도에 따라 0점에서 3점으로 채점되므로,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63점까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BDI수정판(Beck, 1978)을 이영호(1991)가 번안한 것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계수 $\alpha = .859$ 이었다.

2) 자기 도피 척도(Scale for escape from the self : SES)

Baumeister의 이론에 입각해서 신민섭(1992)이 제작한 자기보고형 척도로, 인지적 몰락 상태의 특성을 나타내는 7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서 '예-아니오'로 대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71점까지이며,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계수 $\alpha = .890$ 이다.

3) 숨은 비행 척도(Latent delinquency questionnaire : LDQ)

숨은비행척도에 이용되는 비행의 항목들은 김준호(1990), 심영희(1987)등이 정의한 넓은 의미의 비행을 따른 것으로, 김하연(1991)의 연구에서 사용된 것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25개의 비행항목을 제시한 후 각 항목에 대해 지금까지 해본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숨은 비행척도를 사용한 이전의 연구들에서는 도구에 대한 타당도 연구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절차는 결과의 신뢰성을 갖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척도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측정결과 Cronbach $\alpha = .908$ 로 상당히 높은 신뢰도를 보여 문항간 동질성이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척도의 내적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25개 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숨은 비행척도에 포함된 25개 비행의 빈도가 매우 다르고 그 정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권정혜 등(1992)의 연구에서 사용한 가중치 적용법을 도입하여 각 문항에 대하여 가중치를 주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학생들의 자료에서 척도의 25개 각 항목에 대하여 학생들의 평균을 구하고, 구해진 평균들을 각 문항의 최고점수인 5에서 뺀 값을 얻어 그 값을 가중치로 삼았다. 이 가중치는 각 자료의 원점수에 곱하여지게 되어 빈도가 낮은 항목은 높은 가중치를 빈도가 높은 항목은 낮은 가중치를 얻게 된다.

이와같은 가중치 적용방법에 의해 계산된 점수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부록 1에 제시하였다. 요인 추출방식은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적용하였으며 주성분 분석 결과 고유치(eigenvalue)가 1.0이상인 요인으로 5개가 추출되었다. 산출된 5개의 요인은 전체 공변량의 57.5%를 설명하고 있었으며, 25개의 문항들이 각 해당요인에 대해 .39 이상의 요인 부하량을 나타내고 있었다. 결과를 보면 각 요인은 불량행위, 침해적 비행, 성관련 비행, 가족이탈적 비행, 집단폭력적 비행으로 분류되며, 여기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살펴보면, 각 요인이 그 유형과 정도에 있어 관련있는 문항들을 잘 나타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서 숨은비행척도의 준거타당도 검증을 위해 광주소재의 소년원생들에게 숨은비행척도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가 일반 청소년과 비행집단을 구분해 주는 요인이 됨을 입증하고자 판별함수분석(Discriminant func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 때 숨은비행척도의 결과가 성적 수준이나

사회경제적 수준보다 두 집단을 잘 변별해주는 것인지를 비교하기 위해 성적 수준과 사회경제적 수준을 판별함수분석의 예측변인으로 포함시켰다. 이 분석에서 Wilk's lamda 기준에 의하여 기여도를 평가하였으며 이때 사용된 F값(F to enter)과 판별함수 계수는 부록 2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세 변인 모두 두 집단을 구별해 주는 변인으로서, 각 변인, 즉, 숨은비행척도 점수, 성적 수준, 사회경제적 수준이 갖는 Wilk's lamda의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들이었다(Wilk's lamda=.65345, $p < .001$, Wilk's lamda=.57871, $p < .001$, Wilk's lamda=.60479, $p < .001$). 따라서 숨은 비행의 정도나 성적 수준, 사회경제적 수준을 예측변인으로 할 때 일반 청소년과 비행집단이 구별될 수 있음을 나타내준다. 그런데 분류시켜주는 정도를 비교해 보기 위해 판별율(Percent of grouped cases correctly classified)를 계산해보았을 때 성적 수준과 사회경제적 수준은 58.44%와 66.88%의 판별율을 보이는 반면 숨은 비행척도의 판별율은 75.69%로 높은 판별율을 나타내었다.

절차

각 연구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일반 고등학생에게 위의 평가도구를 실시하고, 사회경제적 수준, 학업성적 정도, 부모의 생존과 이혼 여부, 직업, 교육수준등을 기록하게 하였다. 사회경제적 수준은 상류에서 하류까지 5점 척도로 제시하였고, 학업성적도 마찬가지로 상위에서 하위까지 5종류로 분류하여 자신이 해당된다고 여기는 수준에 기록하게 하였다. 부모의 직업을 24가지 유형을 제시하여 해당란에 표시하게 하였고, 교육수준은 무학에서 국졸, 중졸, 고졸, 대졸 이상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각 질문지는 해당교의 담임교사가 학급단위로 수업시간 중에 실시하였으며, 평균 소요시간은 약 40분 정도였다.

결 과

숨은 비행척도(LDQ), 자기 도피척도(SES), 우울(BDI), 성적 수준(GRADE), 사회경제적 수준(SS)의 측정에서 얻어진 고등학생 집단의 평균치는 표 1과 같다.

표 1. 숨은 비행(LDQ), 인지적 몰락(SES), 우울(BDI), 성적(GRADE), 사회경제적 수준(SS)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	SES	LDQ	BDI	GRADE	SS
M	20.98	44.65	13.09	2.79	3.11
(SD)	(11.97)	(14.01)	(7.84)	(1.31)	(.79)

위의 결과는 신민섭(1992)의 결과에서 고등학생의 BDI평균이 15.92, SES가 18.87로 나타난 것과 유사하며, 성인자료(BDI 평균: 7.54, SES 평균: 10.34)와 비교해 볼 때는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자가지각이 증가함으로 인해 성인보다 우울감을 느끼며 이로부터 도피하려는 성향이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

분석 1

우선 각 변인과 비행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우울, 인지적 몰락, 성적 수준, 사회경제적 수준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숨은 비행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숨은 비행에 대한 우울과 인지적 몰락, 성적, 사회경제적 수준의 효과

독립변인	R ²
1) SES BDI GRADE SS	.10701**
2) BDI GRADE SS	.08812**
3) SES GRADE SS	.10250**
4) SES BDI SS	.07216**
5) SES BDI GRADE	.10198**
6) BDI	.04727**
7) SES	.06541**

	R ² 의 차이 (semi-partial R ²)
방정식 1)-2) (인지적 몰락의 주효과)	.01889**
방정식 1)-3) (우울의 주효과)	.00451
방정식 1)-4) (성적 수준의 주효과)	.03485**
방정식 1)-5) (사회경제적 수준의 주효과)	.00503
SES(인지적 몰락) BDI(우울) GRADE(성적 수준) SS(사회경제적 수준)	
** p < .01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울과 인지적 몰락이 숨은 비행을 예측하는 단순회귀에서는 의미있는 상관을 보여 두 요인이 숨은 비행과 관련있음이 검증되었다(F(1, 423)=20.99, p<.001, F(1, 423)=28.78, p<.001). 그러나 다른 변인들이 통제되어 우울만이 갖는 주효과(semipartial R²)를 살펴보았을 때에는 의미있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F(1, 425)=2.12, p>.05). 반면, 인지적 몰락은 다른 변인들의 효과를 통제하더라도 숨은 비행과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F(1, 425)=8.88, p<.01). 이 결과는 우울이 비행과 관련성이 있으나 이는 직접적 관계가 아니라 인지적 몰락을 매개로 하는 간접적 관계이며, 인지적 몰락이 숨은 비행과 보다 직접적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변인이 통계적으로 통제되었어도 성적 수준 또한 비행의 많은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는데(F(1, 425)=16.39, p<.01), 이 결과는 비행과 학업능력과의 관계를 연구한 이전 연구 결과(Rutter, et al., 1970)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회경제적 수준은 비행을 설명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 425)=2.37, p>.01).

위의 결과는 우울과 비행이 관계있음을 지지해 주며,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가 직접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인지적 몰락상태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간접적 관계임을 시사한다.

분석 2

본 연구의 서론에서 Baumeister의 이론에 입각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은 전체 비행이 아니라 Weiner가 제시한 신경증적 비행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위의 분석 결과 가정했던 것처럼 우울과 일반 청소년이 일으키는 비행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었다. 즉, 일반 고등학교생들이 보이는 비행은 우울과 관련되는데 그 관계는 간접적인 것이고 보다 직접적으로는 우울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적 몰락과 관련되어 있음이 검증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관심으로 서론에 언급된 보다 우울한 학생들의 비행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우울 경향성이 적은 학생들의 비행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우울 경향성이 많은 학생들과, 반대로 우울 경향성이 적은 학생들을 분리했을 때 우울 경향성이 높은 집단에서 실제 우울-인지적 몰락-비행의 관계가 더욱 분명해지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때문에 두번째 분석에서는 대상자들 중 우울의 경향성을 많이 보이는 학생들과 아닌 경우를 분류하여 전자의 학생들이 보이는 비행이 인지적 몰락과 더욱 분명한 관계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하였다.

우울의 경향성이 높고 낮은 것은 본 연구에서 참여한 학생들이 나타난 우울의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BDI=13)보다 높은 우울점수를 보인 학생들을 우울 경향성이 높은 경우로 평균보다 낮은 우울점수를 보인 학생들을 경향성이 낮은 경우로 분류하였다. 이론적 설명에 따라 우울한 청소년이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비행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높은 우울 점수를 보인 집단에서 비행에 대한 인지적 몰락의 설명력은 전체집단에서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 각 집단 즉, 우울의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분류된 집단과 경향성이 낮은 집단에서 각각의 변인과 숨은 비행과의 관계에 대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우울한 경향성이 높고 낮은 집단에서 각 변인의 효과

독립변인	R ²	
	집단 1	집단 2
1) SES BDI GRADE SS	.09619**	.11316**
2) BDI GRADE SS	.07245**	.09782**
3) SES GRSDE SS	.08122**	.10342**
4) SES BDI SS	.08037**	.05170**
5) SES BDI GRADE	.09233**	.10623**
	R ² 의 차이 (semi-partial R ²)	
	집단 1	집단 2
방정식 1)-2) (인지적 몰락의 주효과)	.02374*	.01534
방정식 1)-3) (우울의 주효과)	.01497	.00974
방정식 1)-4) (성적 수준의 주효과)	.01582	.06146**
방정식 1)-5) (사회경제적 수준 주효과)	.00396	.0099

SES(인지적 몰락) BDI(우울)
GRADE(성적 수준) SS(사회경제적 수준)

집단 1: 우울이 13점 이상

집단 2: 우울이 13점 미만

* p<.05 ** p<.01

표 3에서 보여주듯이 우울한 경향성이 있는 집단은 전체집단에서보다 인지적 몰락이 비행을 보다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었다(F(1, 212)=5.57, p<.05). 그리고 전체집단에서는 성적 수준이 인지적 몰락 변인보다 비행의 더 많은 부분(3%)을 설명하고 있었으나, 우울한 경향성이 있는 집단에서는 인지적 몰락의 설명력이 더 커졌을 뿐만 아니라 성적 수준은 이 집단의 비행을 의미있는 수준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다(F(1, 212)=3.70, p>.05). 따라서 우울한 경향성이 있는 집단의 청소년이 일으키는 비행은 성적 수준이나 사회경제적 수준 등의 외적 요인보다 인지적 몰락이 더 많은 부

분(2%)을 설명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우울 경향성이 적은 집단의 결과를 보면 이 집단에서 보이는 비행은 우울이나 인지적 몰락의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던 반면($F(1, 210)=2.306, p<.05, F(1, 210)=3.652, p>.05$), 성적 수준이 가장 많은 부분(6%)를 설명하고 있어($F(1, 210)=14.55, p<.01$) 우울 경향성이 적은 집단에서 보이는 청소년의 비행은 우울이나 인지적 몰락과 같은 내적 요인보다는 다른 요인이 더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종합해보면 이상의 결과들은 위에서 설명한 비행과 인지적 몰락의 관계를 더욱 분명히 해주는 것으로 우울한 경향성이 있는 청소년은 그러한 자신의 정서적 고통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미를 거부하고, 자신의 인식수준을 낮추어 감각적인 것, 순간적 일에 몰두하는 등의 자기파괴적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보다 의미있게 지지해 주는 것이며, 더불어서 우울하지 않은 청소년이 보이는 비행과는 기제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준다.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비행의 행위 유형별 빈도와 기제분석

마지막으로 위에 기술한 바, 우울-인지적 몰락-비행의 기제가 비행의 특정한 하위유형에 더 적절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우울, 인지적 몰락, 성적 수준, 사회경제적 수준과 비행의 하위유형들과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 이전에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의 비행 유형과 빈도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들이 보고한 비행의 빈도와 형태를 보면 흡연, 당구장 출입, 늦은 귀가, 돈내기 도박, 절도, 음란서적, 음란비디오, 컨닝 등의 유형에서 한두번 이상 경험한 학생이 50.9%에서 89.0%까지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다음으로는 술집출입, 등록금유용, 구타, 패싸움 등의 유형이 높은 빈도를 나타냈는데 학생들 중 22.9%에서 49.5%의 학생들이 이러한 비행을 한두번 이

상 해본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외에도 강간(3.0%), 흉기소지(25.0%), 강간 이외에도 사창가 출입, 음란전화, 길 가는 여성 희롱, 성관계등의 문항에서 14.1%에서 17.7%의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비행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의 행위유형은 앞의 요인분석 과정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단순 불량행위, 침해적 비행, 성관련 비행, 가족이탈적 비행, 집단폭력적 비행으로 구분지을 수 있다. 이들 각 유형의 비행이 우울과 인지적 몰락의 내적 기제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기제로 설명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을 구분하고 가중치가 적용된 문항들의 총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우울, 인지적 몰락, 성적 수준, 사회경제적 수준이 각각의 요인들을 얼마나 예측해 줄 수 있는지 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변인의 효과만을 선정하여 표 4에 제시하였다.

회귀분석에서 stepwise를 통해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갖는 요인들이 산출되었는데, 그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비행의 결과와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다섯개의 요인 중에서 네개의 요인이 성적 수준이나 사회경제적 수준 보다는 인지적 몰락에 의해 가장 잘 예측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들의 관계는 다른 변인들을 통계적으로 통제하더라도 위의 결과와 일치하게 나왔다($F(1, 425)=7.10, p<.01, F(1, 424)=5.36, p<.05, F(1, 424)=7.22, p<.01, F(1, 427)=7.99, p<.01$). 그러나 네번째 요인에 속하는 가족 이탈적 비행은 다른 요인들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 요인에 속하는 문항에는 부모에게 받은 등록금 유용, 무단결석, 가출 등이 포함되는데, 이 유형의 비행은 인지적 몰락 보다는 우울이 보다 직접적 관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F(1, 427)=13.17, p<.01$).

위의 결과는 앞의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일반 학생들에게 발견될 수 있는 비행은 유형별로 분류하여도 우울이나 인지적 몰락과 관련성이 높음을 나

표 4. 각 비행유형에 대한 변인들의 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R ²				
	불량행위	침해적	성관계	가족이탈적	집단폭력적
SES	.04903***	.02736***	.03268***		.04539***
BDI				.06315***	
1) SES BDI GRADE SS	.08524	.02835	.04618	.10020	.07709
2) BDI GRADE SS	.6999	.01608	.02994		.05983
3) SES GRADE SS				.07244	
R ² 의 차이 (semi-partial R ²)					
	불량행위	침해적	성관계	가족이탈적	집단폭력적
방정식 1)-2) (인지적 몰락의 주효과)	.01525	.01175	.01624		.01726
방정식 1)-3) (우울의 주효과)				.02776	
F값	7.1018**	5.3630*	7.219**	13.174**	7.986**

SES(인지적 몰락) BDI(우울) GRADE(성적 수준) SS(사회경제적 수준)

* p<.05, ** p<.01, *** p<.001

타내준다. 그리고 또다른 하나의 시사점은 우울과 인지적 몰락의 영향력이 어떤 특정 유형의 비행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점인데, 여기서 한가지 생각해 보아야할 결과가 있다. 다섯가지 유형의 비행 중 가족이탈적 비행이 인지적 몰락보다는 우울과 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각 유형의 비행이 모두 우울, 인지적 몰락과 관련되기는 하였으나 그 중 가족이탈적 비행 유형은 관련 기제에 있어서 다른 비행 유형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논 의

본 연구는 비행의 여러 분류유형 중에서 Weiner가 제시한 신경증적 비행에 초점을 맞추어 청소년들이 겪는 우울과 이 시기에 급증하는 비행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전의 우울과 비행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주로 관련

성의 유무를 입증하는데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한 내적 기제는 밝히지 못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두 변인 사이를 인지적 몰락상태가 매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그 기제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우선 이러한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비행을 측정하는 척도의 타당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숨은 비행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한 뒤 변인들 간의 관계를 검증해 보았다. 문항간 일치도, 요인분석, 판별함수분석을 통한 숨은 비행 척도에 대한 타당성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숨은 비행척도가 청소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비행들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 척도의 측정결과가 실제 비행성향의 정도를 구분해 줄 수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도구의 타당성을 바탕으로 연구문제들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단순회귀와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가정하였던 바와 같이 우울이 비행과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관계는 간접적인 것

임이 나타났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성적 수준의 효과도 유의하였다. 그러나 우울, 인지적 몰락과 비행간의 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우울 경향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분리하여 실시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는 우울 경향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 우울과 비행과의 관계는 다른 변인에 의해서 보다는 인지적 몰락에 의해 매개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우울 경향성이 낮은 집단에서는 우울이나 인지적 몰락과는 관계가 적으며, 성적 수준이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것임을 나타냈다. 이와같은 결과는 우울 경향성이 높은 청소년이 일으키는 비행의 경우, 우울감이 청소년기 비행을 발생시키는 것이라기 보다는 내적 우울감의 정서적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발생하는 자기인식의 회피, 의미의 거부, 감각이나 운동추구, 단기적 사고 등의 인지적 몰락상태가 비행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보다 분명하게 시사해준다. 그리고 우울 경향성이 적은 집단에서 발견되는 비행은 우울한 경향성이 높은 집단이 일으키는 비행의 기제와는 다른 기제를 갖는다는 것을 지적해 준다.

그 다음, 요인분석을 통해 얻어진 다섯개의 요인을 비행의 하위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들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 언급된 우울, 인지적 몰락, 사회경제적 수준, 성적 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비행을 유형별로 분리하여 이해할 때도 인지적 몰락이나 우울이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며, 동시에 우울이나 인지적 몰락의 영향이 특정유형에 국한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해준다. 그렇지만 결과에서 비행 유형 중 가족이탈적 비행은 두 가지 내적 요인 중 우울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다른 유형의 비행과는 기제에 다소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형별 비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차후 비행의 하위유형 중심의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연구가 갖는 다음의 몇 가지 의의 및 이론적 시사점을 살펴볼 수 있겠다.

첫째는 본 연구의 핵심주제인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Weiner의 신경증적 비행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이 관계의 내적 기제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였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이전의 우울과 비행의 관련여부에 대한 연구에서 더 나아가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를 검증함과 더불어 두 변인간에 작용하는 기제에 대한 설명의 시도로 비행을 설명하는데 Baumeister의 이론이 적용 가능함을 시사하였다. 이제까지는 우울 증상의 표현에 있어 발달적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성인들보다 인지적, 정서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해 왔다. 그러나 신민섭(1992)의 연구결과 이러한 증상표현의 차이가 인지적 몰락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우울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행과 같은 자기과파적 행동은 인지적 몰락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가를 검증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실제로 비행청소년을 다루는데 있어서의 중요한 제안점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행의 분류에서 비행을 저지르게 된 개인 내적 원인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점과 더불어 더욱 중요한 것은 치료의 측면에 관한 것이다. 이제까지 비행에 대한 치료적 접근들은 행동수정에만 초점을 두어왔는데(Lewis, 1987), 위의 서론 부분에서 언급한 Weiner의 연구 결과도 말해 주듯이 행동수정만으로는 청소년의 비행을 치료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일반 청소년의 경우 우울과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들에게는 행동수정보다는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며, 장기적으로 목표를 갖게 하는 등의 인지적 접근에 의한 치료가 보다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청소년 비행을 이해하는 맥락에서 위와같은 시사점을 제시한 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로는 우울과 인지적 몰락변인이 비행을 의미있게 설명해주는지는 하지만 그 정도가 6%내에

그친다는 점이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한가지 가능성은 방법상에서의 문제로 표집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Weiner의 신경증적 비행에 근거한 분류를 따르고자 했는데, 실제적 분류의 어려움으로 '대한 적십자사'의 연구(1988) 결과를 토대로 일반 학생집단이 보이는 비행이 정서적 문제와 관련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 가정에 따라 연구의 대상을 일반학생들로 하였기 때문에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임상집단의 특성과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 특히 우울의 특성에 있어서는 임상집단과 일반집단은 개념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울의 영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보고자 했던 변인들간의 영향력이 제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Weiner의 신경증적 분류에 기준하여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임상 집단에서의 변인간 관계가 더 유의할 가능성이 크므로 임상 집단에 대한 표집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임상적 유용성을 갖기 위해서는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한 부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울과 인지적 몰락이 갖는 설명력이 적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서론에 언급한바대로 비행은 상당히 다양한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적 수준이나 사회경제적 수준을 포함시키긴 하였으나 이러한 변인외에도 여러 변인이 관계되어 있다. 최근까지도 여전히 비행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는 변인들로는, 자아강도나 충동성(Lewis & Miller, 1990)등의 내적 변인과 더불어 동조성 및 교우관계(김하연, 1991), 부모자녀관계, 부모관계(김준호, 1990, 권정혜, 1992), 사회적 상황에서 이익과 부담의 지각(김영신, 1993), 학습과 공격성(곽금주, 1992)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우울의 영향력에만 초점을 두고자 하여 이와같은 여러 변인의 영향을 함께 고려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실제 연구에서 이 모든 변인들을 함께

분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실제 연구에서는 제한적 변인들의 관계가 연구되지만 직접적으로 청소년에 대해 이해하고 청소년들과 접하는 장에서는 여러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여러 변인들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는 방법이 유용할 것이다.

두번째로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으로는 이론적 측면의 문제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Baumeister가 제시한 정서적 도피에 대한 내적 과정을 한 시점에 고정시켜 모든 과정을 가정하였을 뿐, 실제로 이러한 과정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검증하지는 못하였으므로 Baumeister의 가정에 대한 직접적 증거라기 보다는 간접적으로 지지해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론에 대해 직접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의 비행에 이르는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연구하는 내적 과정에 대한 추적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행의 하위유형별 분석에서 가족 이탈적 비행이 다른 하위유형들과는 다르게 우울과 더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하였다. 하위유형별 분석에서 유형별로 특별히 다른 기제를 갖지 않는 것은 비행의 특성이 행위자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행동 특성과는 관련이 적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가족 이탈적 비행에서 다른 하위유형들과는 구별된 결과를 보인 것은 이 유형의 비행은 다른 유형들과는 다른 특성을 가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그 특성에 대해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변인들로는 설명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청소년 비행의 하위유형별 특성 중 가족 이탈적 비행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위유형을 중심으로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곽금주(1992). 공격영화시청이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정보처리과정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 박사학위 청구논문.
- 권정혜, 이봉건, 김수현(1992). 부모양육 변인들과 교육관계 변인들이 청소년 초기의 숨은 비행에 미치는 효과, '92연차대회 학술발표 논문집. 한국 심리학회.
- 김성이(1988). 청소년의 약물남용실태와 분석. 청소년 약물남용에 관한 적십자사 심포지엄. 미간행.
- 김준호(1990).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 김하연(1991). 청소년 자아개념, 또래집단에 대한 동조, 비행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동호(1991). 청소년 범죄와 그 문제점 분석: 실제 발생한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 청소년 연구, 5, 183-197.
- 신민섭(1992). 자살 기제에 대한 실증적 이론: 자기로부터의 도피 척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1990). 고등학생의 자살 성향에 관한 연구: 우울-절망-자살간의 구조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임상, 9(1), 1-19.
- 심영희(1987). 비판 범죄론-일탈과 통제의 분석-. 서울:법문사.
- 오경자(1989). 청소년 비행의 평가. 1989년도 추계 학술대회. 대한청소년 정신의학회.
- 이길홍(1991). 정신의학 분야에서의 청소년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 청소년 연구, 2, 33-48.
- 이환배, 곽영숙, 백기정(1992). 아동행동 조사표에 의한 입원한 행동장애 청소년의 분류. 신경정신의학, 31(2), 351-361.
- 전광문(1991). 청소년 범죄의 흉악화와 성범죄 원인에 관한 고찰. 한국 청소년 연구, 4, 169-183.
- 전문성(1992). 거주환경과 청소년비행의 관계 연구. 한국 청소년 연구, 8, 78-102.
- Asarnow, J.R., Carlson, G.A., and Guthrie, D.(1987). Coping strategies, self-perceptions, hopelessness and perceived family environments in depressed and suicidal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3), 361-366.
- Baumeister, R.F.(1991). Suicide as escape from self. *Psychological review*, 97(1), 90-113.
- Blumberg, M.L.(1977). Depression in children on a general pediatric service.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32, 20-32.
- Brooks-Gum, J., and Petersen, A.C.(1991). Studying the emergence of depression and depressive symptom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2), 115-119.
- Cantwell, D.P., and Baker, L.(1991). Manifestations of depressive affect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 121-135.
- Carlson, G. L., and Cantwell, D.P., (1980). Unmasking masked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7(4), 445-449.
- Chiles, J.A., Miller, M.L., and Cox, G. B.(1980). Depression in an adolescent delinquent populat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7, 1179-1184.
- Cole, D.A., and Carpentieri, S.(1990). Social status and the cormorbidity of child depression and conduct disorde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8, 748-757.
- Craighead, W.E.(1991). Cognitive factors and classification issues in adoeslcent dep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

- cence*, 20(2), 311-326.
- Curry, G.B., and Craighead, W.E. (1990). Attributional style in clinically depressed and conduct disordered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8(1), 109-115.
- Cytryn, L., and Mcknew, D.H. (1974). Factors influencing the changing clinical expression of the depressive process in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1(8), 879-881.
- Kaplan, H.B. (1980). Toward a general theory of deviant behavior. *Deviant behavior in defense of self*. Academic press, New York.
- Kaplan, H.B., and Johnson, R.J. (1986). Self-rejection and the explanation of deviance: Refinement and elaboration of a latent structure.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9(2), 110-128.
- Kashuai, J., and Simons, J.F. (1979). The incidence of depression in children.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36(9), 1203-1205.
- Leung, K., and Lau, S. (1989). Effects of self-concept and perceived disapproval of delinquent behavior in school childre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8(4), 345-359.
- Lewis, M., and Miller, S.M. (1990). *Handbook of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lenum press: New York and London.
- Marsh, H.W., Relich, J.D., and Smith, I. D. (1983). Self concept: The construct validity of interpretations based upon the SDQ.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1), 173-187.
- Puig-Antich, J. (1982). Major depression and conduct disorder in prepubert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1(2), 118-128.
- Siegel, L.J., and Griffin, N.J. (1984). Correlates of depressive symptoms in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3(6), 475-487.
- Weiner, B. (1982).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New York: John Wiley & Sons.
- Weiner, B., Graham, S., Stern, P., and Lawson, M.E. (1982). Using affective cues to infer causal thoughts. *Developmental psychology*, 18, 278-286.

The Relation between Depression and Delinquency in Adolescents

— Focusing on 'Cognitive Deconstruction' as a mediator —

Jung-Won Kim and Kyung-Ja Oh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psychological mechanism underlying neurotic delinquency, particularly delinquency associated with depression. Beck Depression Inventory, Scale for Escape from the Self, Latent Delinquency Questionnaire and the brief questionnaire concerning social-economic status, academic performance level of the students were administered to 528 students in high school students. First, factor analysis and discriminant funct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validate LDQ and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LDQ is vali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o test the hypothesis that the delinquent behaviors committed by depressed adolescents might be mediated by the state of "cognitive deconstruction" as defined by Baumeister. The results of analyses showed that depression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delinquency among that high school students and that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variables were mediated by "cognitive deconstruction" as measured by SES. When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 high depression group and a low depression group on the basis of BDI score), the cognitive deconstruction variable accounted for more variance in the high depression group than in the low depression group. The results were interpreted to mean that Baumeister's theory of cognitive deconstruction is useful in understanding delinquency associated with depression. Finally, the pattern of results obtained did not differ depending on the specific types of delinquent behavior, suggesting that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delinquents are more important than the type of delinquent behaviors displayed in understanding juvenile delinquency.

부록 1. 고등학생 집단에서 숨은 비행척도의 요인구조

	요인 I	요인 II	요인 III	요인 IV	요인 V
1. 흡연	.76585	-.10031	.04233	.08561	.07388
2. 술집	.70108	-.19744	.12836	.12430	.17113
3. 당구장	.79682	-13.174	.01889	.03934	.07908
9. 낮은 귀가	.61775	.09917	.03134	.19802	.06407
12.도박	.50958	.35482	-.04871	-.14614	-.01576
20.음란서적	.51138	.46808	.05126	-.06468	.01403
21.음란비디오	.58023	.35201	.08808	.00020	-.00765
13.주거침입	-.14475	.52901	.24133	-.13937	.15701
14.기물파손	.07088	.69222	.01701	.15079	.05929
15.절도	-.02178	.69630	.11406	.16741	.03850
25.컨닝	.30128	.48013	.00415	-.10788	.12018
5.사창가	.13361	-.06928	.59309	-.21254	.15673
6.음란전화	.14066	.24918	.62202	-.22033	-.10342
7.희롱	.09610	.18522	.59222	.12867	-.03255
8.강간	-.18524	.05140	.83023	.16109	-.04865
24.성관계	.09079	-.13277	.62420	.30455	.12107
10.돈유용	.30530	.33886	.6665	.45658	-.08869
11.부단결석	.17437	-.00825	.14834	.74541	-.05088
19.가출	-.02578	.02370	-.03195	.61025	.40779
4.디스크장	.20389	-.24268	.34705	-.20920	.54252
16.구타	.16959	.20863	.02562	.05279	.57802
17.패싸움	.29662	-.16298	-.00035	.07806	.66309
18.흥기	-.06846	.28175	-.04794	-.03237	.76185
22.환각제	.03821	-.18879	.28520	.22341	.39035
23.강도	.05270	.27697	-.02402	.33327	.40646
EIGENVALUE	7.98559	2.17568	1.69742	1.41158	1.11514
TOTAL VARIANCE	31.9	8.7	6.8	5.6	4.5

부록 2. 예측변인들의 F값 및 Wilk's lamda값

예측변인	F to enter	Wilk's lamda	표준화된 판별함수 계수
숨은비행척도 점수	75.3073	.65345***	.84526
사회경제적 수준	46.0703	.60479***	.40987
성적 수준	33.9728	.57871***	.32646

*** p < .001